

좋은 책은 누가 만드나

《바람을 담은 집》 중에서

김화영 · 고려대 불문과 교수

문학동네/A5신/366면/7500원

중학교 시절 이래 나는 용돈 중 가장 많은 몫을 책을 사는 데 써왔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책은 나의 삶 자체가 되고 말았다. 자고 깨면 오로지 책을 읽고, 책을 쓰고, 책을 펴놓고 이야기하고, 해석하고, 질문하고 가르치는 것이 나의 일상생활이 되었다. 심지어 책을 손에 든 채 자는 때도 없지 않다. 그리 좋은 버릇은 못 된다. 그러나 내가 있는 곳에는 거의 언제나 책이 있다. 앞에도 옆에도 뒤에도 발 밑에도 책이 있다. 나는 언제나 책에 둘러싸여 있다. 책은 나의 세계다.

여전히 아쉬운 책읽기

그러나 이것이 언제나 즐겁거나 좋은 일만은 아니다. 나는 가끔 책이 없는 곳에 있을 때 기이한 해방감, 홀가분한 자유를 맛본다.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산책길, 물병만 지닌 산행, 낯선 도시에 당도하여 들어간 험벗은 여관방, 정갈한 절방, 혹은 바람부는 바닷가…… 이런 곳은 책이 없어서 좋다. 그 비어 있음은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무 생각 없이 사물을 바라보고, 벽을 마주한 채 비어 있는 공간에 시선을 기대는 그 순간에 나는 깊이 휴식함을 느낀다.

그런데도 나는 곧 읽을거리나 책을 지니고 있지 않음을 아쉬워한다.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 때문이라. 여행길의 기차칸, 자주 길이 막혀 지체하는 시외버스안, 치과병원의 대기실, 심지어는 화장실…… 그런 곳에 앉아 있을 때 읽을거리가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무료하고 답답할 것인가. 그러나 단순히 습관 때문만은 아니다. 책이 있어야 책으로부터 눈을 떼는 것도 가능하다. 세상을 잊은 채 빠져 있던 책에서 고개를 들고 저무는 빛이나 단풍 등 나뭇잎에 떨어지는 초가을의 광채를 그윽히 바라보면 그 깊이가 달라진다. 석자우환일까 먹물의 근성일까. 그래도 좋다. 나는 이토록 많은 책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여전히 장서의 부족함을, 내 책읽기의 불충분함을 아쉬워한다. 나는 책을 사랑한다. 그러나

아무 책이나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이 담긴 글과 책을 사랑한다.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격조 있는 글의 스타일과 정직한 논리를 나는 사랑한다. 침묵으로 가득한 책 속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좋아한다.

여자들이 옷가게나 보석가게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듯이 나는 책방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직업과 무관하지 않겠지만 특히 프랑스에 갔을 때 그러했다. 파리의 서점들은 그곳 책들 속에 담긴 글이나 생각만큼 아름답고 정교하고 질서정연하다. 렌즈가나 레 알의 대형서점 ‘프낙(FNAC)’은 말할것도 없고, 소르본느 대학 앞의 ‘PUF’ ‘니제’ 혹은 생 미셸의 ‘지베르’, 팡테옹 앞의 ‘포켓북 전문서점Pochothé que’, 립상부르 공원 정문 건너편 ‘조제 코르티’ 같은 곳이 내가 즐겨 찾는 서점이다. 날이 갈수록 그곳의 점원들이 무지해지고 장삿속이 되어가는 것은 서운한 일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대부분 충실히 유식하고 섬세하고 친절하다. 저자의 이름이나 책 제목의 일부만을 기억하고 가도 언제나 용케 책을 찾아준다. 책의 내용이나 정보나 생각과 글의 격조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도 귀담아 들을 만하다.

그러나 점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웬만한 책이면 손님이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배열한 그들의 논리성을 나는 좋아한다. 파리의 모든 서점에는 모든 책들이 한결같이 각 분야별로, 저자명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사전처럼 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특정한 책을 구할 일이 없을 때도 마치 정신적인 산책을 하듯이 서점 안에서 많은 시간을 서성거리며 보낸다. 참고서적 목록의 추상적 ‘정보’와는 달리 서점에서는 책의 표지, 두께, 종이의 질, 활자의 모양, 판형 등 구체적인 책의 거의 관능적인 볼륨을 직접 접촉할 수 있어서 좋다.

“저희에게 일용한 책을”

그런데 우리나라의 서점은 어떠한가.

교보 문고를 비롯해서 어느 서점을 가 보아도 나 혼자서 어떤 질서나 순서에 따라 책을 찾을 수 있게 배열되어 있는 곳이 없다. 필요한 책을 꼬집어 말하면 점원은 그 무슨 신비한 자기만의 비결이 있는지 얼른 찾아준다. 그러나 내가 혼자서 막연히 둘러보고자 할 때는 어디서부터 어떤 순서로 찾아보아야 할지 그저 막연하기만 하다. 눈에 잘 띄는 곳에 늘어놓은 책들은 오직 그렇고 그런 베스트셀러뿐이다. 가끔 찾아오는 고객은 기껏 “요즘 무슨 책이 잘 나가요?” 하고 묻고, 주인은 서슴지않고 일간 신문에 연일 대문짝만한 광고를 ‘때리는’ 히트작을 덩싹 집어준다. 논리적 과정이 생략된 채 뒤죽박죽인 책들의 이같은 진열 방식은 마치 저자나 독자의 머릿속 풍경을 그대로 비춰 보이고 있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행해진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서점에 들어가 서성거리는 일은 거의 없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일까? 출판사나 서점 주인의 ‘상업주의’를 탓하기 전에 일차적인 책임은 독자들에게 있다. 독자들에게 양서의 판별능력과 왕성하고 조직적인 지적 욕구가 없는 한 오직 지구상에서 가장 비싸다는 신문 방송의 거대광고가 독서 경향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 광고면의 크기가 책의 질이나 ‘재미’와 비례한다고 믿는 무지한 독자들과 더불어 독서계는 황폐해져간다. 한번 ‘소비된’ 책은 가차없이 망각 속으로 사라진다. 그리고 독자들은 또다른 ‘히트작’ 만을 기다린다.

그러나 좋은 책은 한 번 읽고 버리는 책이 아니다. 책에서 얻는 단 한번의 재미로 말한다면 탐정소설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살인범이 누군지 범행수법이 어떻게 교묘했는지를 알고 난 뒤에 같은 탐정소설을 또다시 읽는 독자가 어디 있겠는가?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라면 사실 구태어 책의 모습으로 존재할 필요도 없다. 오늘날에 발달된 컴퓨터를 활용하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읽고 다시 읽고 소리내어 또 읽고 더러는 몇 페이지를 암송하고 싶은 책. 다시 읽을 때마다 그 의미와 목소리와 깊이가 달라지는 책. 그것이 좋은 책, 창조적인 책이다. 밤에 자리에 누워 잠들기 전에 그 어느 한 페이지만을 네 번 다섯번 천천히 다시 읽고 싶은 책이 많은 나라는 낙원일 것 같다. 그곳에서는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일용할 책을 주시옵고…….’ ❖

우리 아이들이 읽는 책과 보는 책

《너와 나 사이의 시》 중에서

권영민 · 서울대 국문과 교수

샘터/B6/270면/7000원

얼마 전, 집에서 일어난 일이다. 중학생이 된 큰아이의 책상을 정리해 주다가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둔 잡지 하나를 들춰냈다. 무심코 책장을 넘겨보니 책에 수록된 기사들은 대부분 요새 인기 있는 가수들에 대한 것이거나 코미디언들 이야기였다. 그리고 호사스러운 옷 광고, 여학생들의 속옷 광고까지 너절하게 널려 있었다. 제대로 읽을 만한 기사가 하나도 없는 이런 잡지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구나. 교단에 서서 아무리 정서 교육이니 도덕성의 함양이니 하고 떠들어 보아도, 어린 학생들을 충동질하는 저질 인쇄물이 버젓이 책가방에 들어 있는 한, 그 영향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 이라는 걱정이 앞섰다.

해마다 가을만 되면 독서 운동이 벌어진다. 책을 손에 잡고 생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책 속에 길이 있다’는 격언을 들고나서는 사람도 있다. 독서의 계절이라는 것이 따로 구분되어 있을까마는, 가을의 서점가는 언제나 문턱에서부터 부산스러워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막상 무슨 책을 읽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대답에 궁색함을 면하지 못한다.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무슨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지하는 문제에 소홀했던 까닭이다. 특히 젊은 세대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책이 정작 젊은이들에게서 호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임을 직감할 수 있다.

속이 빈 책

책은 읽는 것이지 그냥 훑훑 넘기면서 보는 것이 아니다. 어떤 책은 맛을 보고, 어떤 책은 삼키고, 어떤 책은 잘 씹어서 소화해야 한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같은 책이라도 읽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읽을 거리가 하나도 없는 속이 빈 책이 너무 많이 있다.

특히 국민학교 어린이들이나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하여 만들어지는 잡지들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잡지'에 불과한 실정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양을 높이고 계도하는 기능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소비성과 오락성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이 잡지들의 존재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소년지의 경우, 어느 것이든지 호화판 원색사진으로 채워진 상품 광고들 사이에 황당무계한 만화 조각들이 잡다하게 끼여든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기껏 읽을 거리로 준비해놓은 것은 프로 스포츠 유명선수나 가수의 사생활을 늘어놓은 오락기사다. '먹는 것', '노는 것', '입는 것'에 대한 선전만으로 어린이들을 유혹하는 소년지들의 행태는 기성 사회의 소비 문화의 충동을 일찍부터 어린이들에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학생을 위한 잡지는 잡지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는 여성지들의 편집 방향을 흉내내기라도 하듯 도처에 그 저속성이 드러나 있다. 성(性)에 관한 문제를 매우 자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기사가 반드시 중요한 읽을거리로 끼여 있게 마련이고 화려한 의상, 패션의 과대 선전이 눈을 어지럽힌다. 대중문화 또는 저속한 통속문화의 주역들을 우상으로 추켜세우고, 그것이 청소년들의 꿈과 이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세우는 내용이 거의 매호마다 계속되고 있다. 저질 대중문화의 탁류 속에 청소년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러한 잡지의 윤리성은 청소년들의 의식을 병들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하겠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문방구점이나 거리의 신문 판매대에서도 쉽게 사볼 수 있는 잡지가 '읽히기 위한 책'이 아니라 '눈 요깃감'이 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성을 제기한다. 더구나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따져보면, 그 문제성은 의외로 커다란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잡지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것을 사라!'고 외쳐대는 수백의 목소리가 담긴 화려한 상품들이다. 장삿속으로 달콤하게 꼬이는 말들로 소비 성향을 충동질하고 물질주의가 미덕인 것처럼 심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잡지는 청소년의 진정한 꿈도 담을 수 없고, 청소년들에게 진실된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한다. 광고의 문안에 제시되는 짝막한 형용사들이 현실의 모든 것을 말해 주는 듯한 혼동을 야기시키며, 허영심을 자극한다.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에만 치중하다보니 더욱 강렬하고 자극적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넘겨보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 변화와 신기함, 외관상의 화려함 등이 미덕으로 치부되는 가운데 무언가를 마음 깊이 새기고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사고(思考)의 단순화를 초래하게 됨은 당연하다.

사고와 감각의 문제

청소년들의 경망스런 몸짓이나 짧게 생각된 대화는 바로 감각적 충동과 그에 대한 심정적 반응에서 연유되었으리라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 '좋아' '싫어' '이뻐' 등의 두 음절만 가지고도 판단 내용의 깊이를 따질 필요없이 쉽게 자기들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나 그들의 정서적 편향과 그 판단을 뒷받침할 수만도 없는 형편이다. 사고력을 요구하지 않는 외부적 충동에 길들여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는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읽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는 심미안(審美眼)의 세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고'와 '감각'의 문제다. 우리 시대 문화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출판 문화의 위기가 중대한 국면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청소년들이 책을 읽어야 한다고 떠들 때가 아니라, 무슨 책을 읽을 것인가에 관심을 두어야 할 때이다. 저질의 인쇄물이 사라지기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골라내어 버려야 한다. 좋지 않은 책은 인간의 정신을 독살하는 독약과 같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언제쯤 쓰레기 같은 저질의 인쇄물들에서 우리 아이들을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

어제, 펫 매시니의 재즈 기타에 취했었다면 오늘은, 아인슈타인의 理性에 빠져보는거야!

자유로운 理性을 위한 과학교양서, <사이언스 마스터즈>

감성만 자유롭다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라면,

理性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사이언스 마스터즈 -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

理性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인류의 기원에서 우주의 미래까지

세포의 진화에서 성의 진화까지 -

이제, <사이언스 마스터즈>로

진정한 자유인이 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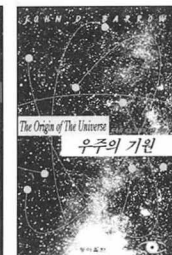
「사이언스 마스터즈 시리즈」 전 22권



① **에덴 밖의 강**
유전자로 본 진화의 매커니즘
과연 인류는 무한대로 복제가 가능한 것인가?
유전자의 결합과 경쟁
그리고 새로운 종의 분리는?
리처드 도킨스 지음



② **마지막 3분**
지구 최후의 운명에 관한 시나리오
2126년 8월 21일,
거대한 혜성과 지구가 부딪힌다.
남은 시간은 3분. 지구의 운명은?
폴 데이비스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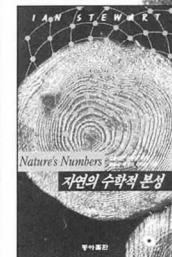
③ **우주의 기원**
우주 최초의 흔적에 대한 탐사
코퍼니쿠스가 전한 우주의 비밀은 무엇인가?
우주의 시작, 초팽창, 오늘날의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 비밀의 기원을 찾아간다
존 배로우 지음



④ **인류의 기원**
화석 사냥꾼이 들려주는 최초의 인간 이야기
인류는 과연 20만 년 전 아프리카의 한 여인으로 부터 시작되었는가?
6만 년 동안 지구의 주인이었던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진 이유는?
리처드 리키 지음



⑤ **원소의 왕국**
화학 원소들의 나라로 떠나는 여행
어떻게 주기율을 통해 우주 만물을 이해할 것인가? 물질의 핵심으로서의 신나는 여행이 될 것이다
파터 앳킨스 지음



⑥ **자연의 수학적 본성**
아름다운 관념의 우주, 수학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
눈송이는 왜 모두 6각형인가?
호랑이는 줄무늬, 표범은 점박이무늬 이유는 무엇인가?
수학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
이언 스테이트 지음

정가: 각권 6,800원
*계속 발간 됩니다.

동아출판
영업 (02)861-4818 / (02)853-5608